

🔇 [사 대통령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; 🕻



뉴스홈 | 최신기사

MLB 셰이스타디움도 '굿바이 뉴욕'

송고시간 | 2008-09-29 11:11











장현구 기자

MLB 셰이스타디움도 '굿바이 뉴욕'

(서울=연합뉴스) 장현구 기자 =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의 홈구장 셰이스타디움이 44년간 임무를 완수하고 29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.

22일 먼저 폐장한 양키스타디움과 함께 뉴욕 야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아온 셰이스타디움은 메츠-플로리다 말 린스전을 끝으로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.



양키스가 홈 최종전에서 볼티모어를 상대로 7·3으로 이기고 유종의 미를 거둔 것과 달리 메츠는 플로리다에 2·4로 패 했고 와일드카드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에 밀려 포스트시즌 진출도 좌절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말았다.

1964년 뉴욕 플러싱에 준공된 셰이스타디움은 후발주자 메츠가 '기적의 메츠'로 불리며 단 시간 내 뉴욕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 록 한 일종의 '드라마 스튜디오'였다.

1969년과 1986년 두 차례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른 메츠는 셰이 스타디움에서 기적을 연출했다.

창단 후 내셔널리그 만년 하위였던 메츠는 1969년 후반기 막판 49경기에서 38승을 올리는 괴력을 연출했다. 홈런왕 행크 애런 이 버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마저 3-0으로 완파하고 리그 챔피 언에 오른 메츠는 그때 기적의 메츠라는 애칭을 얻었다.

이어 월드시리즈에서 볼티모어와 1승1패로 맞선 뒤 셰이스타디움에서 3연승, 4승1패로 첫 우승의 감격을 일궜다.

보스턴 레드삭스와 맞붙은 1986년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는 메이저리그사에 길이 남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.

시리즈 성적 2승3패로 몰린데다 이날도 3-5로 뒤져 패색이 짙던 연장 10회말, 메츠는 마지막 공격에서 보스턴 1루수 빌 버크너가 무키 윌슨의 평범한 땅볼을 알 깐 사이 3점을 뽑아 6-5로 뒤집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.

메츠는 여세를 몰아 셰이스타디움에서 열린 7차전에서 8-5로 승리, 기적 같은 두 번째 우승을 이뤘다.

메츠는 영광을 안겨 준 셰이스타디움 인근에 건설된 시티 필드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.

cany9900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9/29 11:11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









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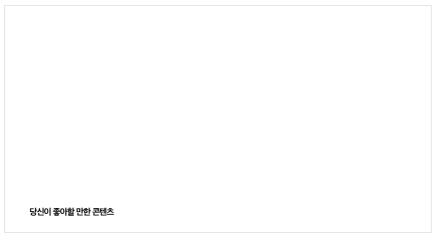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

BUR RETERMINE 英雄紀 LOTTE CASTLE We Do Technology

현장 영상 →

▶ 02:22 ▶ 01:18

[영상] 입-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등 결국 우크라에

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유튜브채널

뭐하고 놀까? #홍→

●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
● 56 재개예열?

5 문대통령, 손석회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
힐 예정"

sns **f**

¥

O

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☑ 151 ^{찰에 고발}

댓글 많은 뉴스

2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 매" 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흥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:398: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

Yonhapnev

외국어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